

신어법 합법화 위한 시험어업 추진

전북도, 어업인 개발한 새우류 포획 어법 해양수산부로부터 시험어업 승인 받아 5~9월까지 시행

새우류 자원이 풍부한 도내 연안에서 합법적으로 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어법이 개발돼 어업인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어업인이 개발한 새로운 어법에 대한 시험어업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시험어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시험어업은 어선의 양 현측에

틀어구를 부착해 표층에서 예망해 새우를 잡는 방식으로, 전북도 연안해역 일부를 시험해역으로 지정해 조업할 예정이다.

현행 '수산물관계법령'상 새우포획을 위한 연안조망어업은 저층 예망 방식으로, 새우 외 다른 저서생물과 혼획이 불가피해 수산자원 고갈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획된 새우의 손상이 심해 상품성이 저하

되고 있어 실제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구어법(가칭, 연안 중하표층틀망)은 연안조망 어법을 준수하면서 저층포획 방식이 아닌 표층 포획방식을 활용하므로, 혼획 및 어획물 손상이 없어 수산자원 보호와 상품성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등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본 시험어업을 통해 새우

포획을 위한 새로운 어구·어법이 제도권내로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시험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수산물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자원(새우류)의 적정이용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광역단체 중 1위

전북도가 공공디자인 전국 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최상위 평가를 받아 '공공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공공디자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불과 2년 만에 달성한 성과로, 전북도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구)서울역사에서 진행된 시상식은 전북도를 대표해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이 참석해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와 추진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전북도를 포함한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전북도의 공공디자인 사례를 비롯한 수상 내용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별도 플랫폼(www.publicdesignawards.kr)에서 온라인으로 공유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189억원 투입 456만 그루 나무 심기 추진

전북도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생태문명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아름답고 경제적인 숲'을 조성한다.

도는 푸른 산과 들, 맑고 깨끗한 강과 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모두가 누리는 '아름다운 숲'과 '경제적인 숲'을 조성하기 위해 189억 원을 투입, 1,951ha에 총 456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라북도-완주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업

2021. 3. 5.(금) 전북도청 4층 회의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협약식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5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공모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1차 사업평가 결과, 제안서를 낸 11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압축됐고, 그 중에 완주군이 포함됐다"며 "완주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5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공모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1차 사업평가 결과, 제안서를 낸 11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압축됐고, 그 중에 완주군이 포함됐다"며 "완주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80명 모집

21일까지 도내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전북도가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도는 제품개발, 연구, 마케팅 등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만 39세 이하 청년 80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청년은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도내 우수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국비 9억 원을 비롯한 총사업비 19억원을 확보

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청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지역별 모집인원은 전주 14명, 군산 24명, 익산 14명, 정읍 4명, 김제 14명, 남원 2명, 진안 2명, 장수 2명, 고창 2명, 부안 2명 등이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서 청년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청년 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80%(월 160만원)를 2년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사업참여 기간 2년을 충족하고 해당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유지할 시, 해당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아울러, 관련 일 경험 기회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제공해 도내 청년들의 능력 배양에도 힘을 전망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취업난 및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도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및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모집사항은 전북도 일자리종합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8일 청년나래 사업에 참여할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 및 발표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경쟁력 강화

전북도,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

전북도가 위촉된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업체의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업으로 견인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2021년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의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일감확보를 위해 제품 다양화 및 고도화 추진으로 산업 체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지난해까지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며,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4억원으로, 도내 소재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6건의 과제를 지원 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기반 제품 고급화 및 성능향상 지원(시제품 제작, 설계·해석) ▲신뢰성 확보를 통한 조기·상품화 지원(시험인증, 특허)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산학연 집적화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이다.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27개 기업에 38건의 과제를 지원해 매출 107억원 및 신규고용 22명, 특허출원 및 등록 10건 등의 성과를 거뒀고, 기업 만족도 결과도 평균 9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사업도 기구축된 조선해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제품 다양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기업·특수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 희망기업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읍사공원 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필히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개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소재지	계 번	분묘기수	비 고
정읍시 서기동	산9, 산17, 산24, 산25-2, 산26, 산28, 산29-1	62	추정 기수
정읍시 교안동	산37, 산39, 산40, 산41, 산58, 산59, 산61, 산67	58	
정읍시 선월동	산23, 산27	3	

2. 개장사유 : 정읍사공원 조성사업
3. 공고기간 : 2021. 3. 8. ~ 2021. 6. 7.(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개장신고 및 개장 후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전북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번지(서남권추모공원/기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정읍시청 산림복지과 공원팀(☎063-539-5771~4)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분묘에 부착된 분묘번호 및 위치 등을 확인 후,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제출
8. 기타사항: 개장 공고후 위의 분묘 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3월 8일
위 공고인: 정 읍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